

5월 19일 121회 류미나 선생님의 강연은 활발한 토의와 열정적 강의 속에 진행되었다.

류미나 선생님은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명치 정부는 유교를 식민지 지배에 어떻게 이용했는가, 더불어 성균관을 폐지하고 대신하게 된 경학원을 어떻게 지배에 이용했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1800년대 후반 일본의 메이지 천황은 유교를 기반으로 천황제를 튼튼히 하고 풍속을 단속하여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반면, 물론 한국에서 유교의 역할은 한 마디로 단정짓기 어려운 다양한 것이지만, 일본과의 비교 측면에서 보면 “충”의 강조라기 보다는 “인의”의 강조로써 일본의 유교와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조선의 근대국민국가를 형성을 요구하면서 내부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한학을 강조하고 유학의 종주국인 중국식 유교모델이 아니라 충효 정신을 강조한 일본식 유교모델을 지향하도록 했다. 또한 일본은 한학에 자신감을 가지고, 「홍아회」와 같은 조선과 일본의 한학자 모임을 만들어 서로 교류하도록 하면서, 통감부에 비협조적인, 식견이 높은 조선의 유학자들의 콧대를 누르고 유화시키려고 했다.

한 편, 구한말부터 유교와 한학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학자들은 유교의 부식을 주장했다. 도덕을 강조하는 구학을 배운 후 기예함양과 부국을 위한 신학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종은 교육입국조서를 통해 이른바 “실용적 유교”를 실현하고자 했다. 더불어 고종의 교육입국조서는, “천황제”를 지지한 일본 메이지 천황의 교육칙언과 비슷한 맥락으로 “왕실의 안정”을 강조했는데 고종이 실각하고 순종이 즉위한 후 “신학문”만을 강조한 것으로 격하되었다.

성균관을 폐지하고 설립한 경학원은 공자보다 오히려 성황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경학원을 설립한 메이지 천황의 덕치과 역할을 치하하여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문제를 희석시켰다. 또한 조선의 왕들이 참가하여 운영되었던 문묘석전을 조선 총독부가 그 역할을 그대로 대치하고 행사를 여자들과 학생들에게 공개했다. 결국 일본 제국정부는 문묘석전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조선 왕실의 역할을 총독부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직접 보게 하고 조선 왕실과 양반, 유림들의 신성한 석전을 관광의 대상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결국 일본 제국 정부는 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의 주자학 중심 유교는 후진성이 있어 나라가 발전하지 못했고 “충”을 강조한 일본식 유교의 우수성 강조를 통해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조선의 오랜 통치이념인 유교 이데올로기를 강조하여 이민족 지배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고자 노력했으며 경학원은 일본의 전략적 유교 이데올로기 이용의 선봉에 서 있었다.

질문 Q&A

Q: 성균관이 역할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출세의 루트였기 때문이다. [성균관]이 [경학원]으로 변화하면서 교육의 기능이 떨어져 출세의 기능이 저하되었는데, 중앙에서 향교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즉 경학원과 지방 기관과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A: 교육의 기능이 저하되었지만 명령에 따라 교육의 장이 생기기도 했다. 또 경학원이 어떻게 영향력을 갖을 수 있었는가는 근대 지식인들의 대립구조 속에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통 학문을 공부한 세력들은 대항 세력과의 경쟁 구조 속에서 지배 세력의 지원을 받기 위해, 경학원에 소속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세력의 규합이라는 면에서 출세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경학원 자체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 덧붙여 양반의 의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들은 조선인이라는 국가적 소속감보다는 세력들끼리의 소속감이 중요했다.

Q: 유교는 일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일본 내의 통치수단으로써의 유교를 식민지

지배로 확대시킨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조선만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인가?

A: 조선 왕조의 유교는 충효정신이라기 보다, 선비는 인과 의를 가지고 국왕은 덕으로서 통치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가진다. 그런데 일본의 유교는 조선의 그것과는 달리 충효정신으로 단순화시켰다. 일본 제국주의 정부는 성균관 내에 경학원을 설치한 후, 성균관을 없애고 그 역할을 경학원이 대신하도록 했고 이후에 성균관으로 복칭되지만, 그 성균관은 조선시대의 성균관과는 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 정부는 조선에서 유교가 양반제 때문에 보급되지 못했고 조선의 왕조가 망했다며 조선왕조의 유교를 완전히 부정한다. 반면, 일본의 천황제와 일본의 충효 사상이 완벽하기 때문에 역성혁명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Q: 서구열강이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지배하려고 할 때 있었던 "황금의자"에 관한 이야기는 인류학에서 유명한 이야기이다. 문묘석전 때 총독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던 것은 조선 총독부에게 위험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문묘석전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분이 어떠했는가?

A: 아직 그 것에 대한 사료를 찾지 못했다. 또 문묘석전에서 총독이 앉았던 자리는 공자의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이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양반들이 왕을 어떻게 인식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다. 3.1일 운동에 대해 양반들이 평가한 사료를 보면 "왕이 죽었다는 것은 안된 일이다" 라고 한 양반이 서술한 부분이 나온다. 여기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왕과 양반의 관계가 중앙집권적인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독이었던 테라우치(寺內)가 그 것을 모두 파악하고 시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고 단지 조선에 대해 굉장한 학습을 했다는 사료는 존재한다.